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聖上陛下御親祭 宮中의紀元節御儀

肇國의 聖紀 炳乎히 悠久二千六百年 今日의 이 마즌 式年의 紀元節、惶恐하옵시게도 宮中에서는 賢所 皇靈殿 神殿에서 天皇陛下 御親祭下에 式年의 御儀도 한層 더기피 莊嚴한 紀元節을 行하옵시고 또 御宮을 비롯하사 勅使 多摩 兩山陵에 勅使를 參向、奉幣시키옵서 今日의 御儀를 行하옵섯다 맑게개인이날 瑞祥에 充滿한 賢所의 殿上에는 御 … 立하고 御 …

門에서운 大嘗宮의 五色絹은 神代로부터의 神域에비치고 東側에는 御劍、瓊玉이걸리고 西側에는 御鏡이걸리어 … 奉仕되엿다 … 이 노여잇고 御祭典이 가까다 … 午前八時 殿上에는 純白祭服의 三條掌典長 … 東側齋子를 지나 正面御扉의 어페나아가 … 掌典次長파 相對하여 着座、이

어御樂「미에구란」의 神曲奏樂에 … 御扉는 開扉 … 히 進行되엿다 … 正面의 … 를 거두매 … 奉供하고 三條掌典長 大前에 參進하여 … 「紀元二千六百年의 紀元節에當하여 御親祭하옵심에 依하여 … 幣帛을 奉供한다」는 祝詞를奉奏하엿다 이때

부터 陛下 … 에는 米內首相以下 文武百官이 … 여 參着 秩父宮同妃兩殿下를 비롯하사 各皇族께서도 西幄舍의上首에 御着床하섯는데 時刻正 … 祭服 또는 … 天皇陛下께옵서는 … 御束帶로써 御笏을 잡으옵시고 侍從이 …

社說 米大統領의 和平工作 (歐洲戰爭의新段階)

一

米國國務長官은 九日記者團과의 會見席上 米國은 中立國諸國과 和平工作을 進行中이라고 發表하고 그 內容은 아직 和平의 具體的 方法에는 着手치 안코 오직 經濟及 軍縮에 關한事項에만 限하엿스나 將次交戰國諸國에까지 及할 計畫이라 하엿다 同日 華盛頓電에 米大統領이 웰스國務次官을 英佛獨伊諸國에 派遣하겟다 言明한것과 對照하면 米國은 歐洲大戰의 和平工作에 着手한것으로 볼수잇서 그 前途가 매우 注目된다.

二

歐洲大戰은 이미 勃發한지 五個月을 經하엿다. 그러나 英獨兩國의 艦船이 若干 擊沈되고 兩國海港이 爆擊된以外에는 何等 볼만한 戰鬪行爲가 업서서 第三國人으로 하여금 戰爭을 하는가 마는가 疑心할程度이다. 이것은 交戰國이 모두 戰爭의 不利를 알면서도 體面關係로 戰爭을 하는것이라고 밧게 解釋되지안허서 適當한 仲裁者만 잇스면 和平의 可能性이 잇는것을 意味한다. 卽 英佛이나 獨逸이나 他方을 短時日에 粉碎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코며 萬一 戰爭이 長期化하면 戰敗者의 損失은 말할것도 업고 戰勝者도 利害바 업는것은 第一次大戰이 證明하는바다 도리어 共産國家인 蘇聯의 勢力을 强大케하여 世界不安의危險性을 增大할뿐이다. 그러므로 交戰國이 講和를 希望하는것은 事實이나 오즉 먼저 이것을 應諾하는者가 不利한 立場에 서게되므로 第三者 伊太利首相의 仲裁出馬云云時에나 白蘭兩元首의 講和提議에나 應치안코 今日에 至하엿던것이다.

三

그러나 只今에 와서는 和平의 機會는 매우 조타. 何故오하면 解氷을 機會로 兩方는 攻勢에 나오랴하며 一旦 開始된 攻勢는 長期戰에 陷入치 안흘수 업슬지니 이제 和平을하면 雙方에 大損害업시 講和할수잇슬것이므로써다. 그뿐아니라 米國은 中立國서 가장强國이어서 伊太利나 白、蘭의 仲裁力보다 强할뿐아니라 講和에 反對한 英國이 歡迎하는 나라이다 英國이 講和에 應하겟다할때 獨逸이 不應하겟다할 自信은 업슬것이다. 何故오하면 이 大戰이 長期化하면 設使 伊太利가 參戰하고 蘇聯의 援助가 잇더라도 英佛米三國의 攻勢에 敵치 못할것을 알므로써다.

四

웰스國務次官의 渡歐使命은 和平工作에잇스나 何等 提議할權限파 實質을 줄 機能을 賦與밧지 못하엿스므로 卽時 和平交涉이 되리라고는 밋지안는다 오직 交戰國及 伊太利의 眞意打診에 그칠것이다. 그러나 英佛獨이나 伊太利나 구타여 戰爭을 希望치안는것이 事實인以上 웰스次官의 報告를 기다려 未久에米國이 講和運動에 着手할것은 明若觀火다. 이때 獨逸側에 多少 不利한 條件이 賦與될것은 事實이며 이에伴하여 蘇芬關係、波蘭、체코·슬로바키아問題 빨칸三國問題가 나올것은 明瞭하다 果然米國이 英佛을 利롭게하여 獨逸을蘇聯파가깝게할것인가 獨伊를 讓步케하여 獨伊를英佛파 握手케하여 蘇聯及 日本에 不利하게할가 우리는 그進展을 … 注視할 必要가잇다

聖節! 擧國奉祝의曠古盛儀

一億蒼生感激裡에 橿原·宮崎兩神宮大祭

畝傍御陵서는山陵祭執行

006455

【橿原電話】皇紀二千六百年、一億日本民族이 오로지 待望하든 感激의紀元節! 萬邦에 比類업시 燦然千古에 빗나는榮光의 佳節、二月十一日은 드디어왓다 聖地 橿原을둘러싼 多武峰 吉野 金剛 葛城連山의 春雪은 化粧도한層 새롭고 畝傍의靈峰도 山容을莊 하엿는데 宮柱太敷한 大前에는 瑞氣가滿溢하여 新東亞建設戰의 最中에 마지한意義기픈 佳日을 奉祝하엿다 이날이른아침 光榮잇는 嚴儀를압두고 橿原神宮에는 社殿을裝飾、午前九時부터素木의 香氣새로운神殿에 勅使가 參向하여 例祭를 午後二時부터 大祭式에依한 紀元節의 本義가 執行되어 內閣代表以下 全國各種團體代表 滿洲國代表等 三千名에達하는 參列者 數十萬에達하는 參拜者로 聖地는歡喜에넘치엇다

例祭는 定刻兎田宮司 役員以下 神職及 三萬奈良縣知事 內務省高等官 地方官代表가 手水를 修祓한後 所定의자리에 着席하자 勅使室町掌典이 御幣物을바들고 參進、奏樂裡에 禰宜以下奉仕하여 神饌을 供하고 宮司가삼가히 祝詞를奏하고 御幣物을 奉納하엿다 萬籟는 조용하여 소리도업고 森嚴한 氣運은 一層더한中에 勅使가 朗朗히 御祭文을 奏上、一日本座에 돌아온後玉串을바들고 拜禮한後 이어서 參例員祭員도 順次拜禮하고 十一時終了하엿다 이리하여 午後二時부터 光榮잇는 紀元節祭의 本義에올 마 內閣代表 下條賞勳局總裁以下 各省代表 帝國在鄕軍人會長井上 幾太郞大將 貴族院副議長佐佐木 行忠侯 水野全國神職會長奉祝會

役員 傷痍軍人會 建國奉仕隊 等 全國民을代表하는 三千名及 盟邦滿洲帝國代表 司法部大臣張煥相氏도 國賓을 陪從하고 參列하여 內外拜殿翼廊에 가득하엿다

그다음 幣帛使三萬奈良縣知事가 衣冠에威儀를가추고 唐櫃를 先行하여 고요히 齋所에 들어 修祓을밧고 所定의자리에 着席하자 宮司諸事奔儀하엿슴을 말하고 幽雅한樂音裡에 再次御扉를열고 禰宜以下神饌을奉仕、宮司御幣物을바다 神前에 奉納하니 供進使祝詞를奏하고 玉串을 捧持하고拜禮 參列員總代 玉串을奉納하니 參列員一同 自座에서列拜 再次奏樂裡에撤饌、諸員 順次로退出하여 午後四時 盛儀를마첫다

一方畝傍御陵에서는 同日午前十時 勅使 九條道秀公 參向하여 老松이 濃綠한 御陵에서 嚴肅히 山陵祭가 執行되어 十一時부터 新裝된 橿原神宮外苑運動場에서 奈良縣主催의 建國祭를 擧行하여 縣下 各種團體一萬人이 參集、宣言한後 宮城遙拜 國歌及 紀元二千六百年頌歌를齊唱、宣誓文朗讀이 잇슨後 建國奉仕隊 結成團體에 對하여 奉仕隊旗를 授與、旭日에 八咫烏를 配置한 奉仕隊旗를 先頭로 大行進을 始作하야 神宮에 參拜하엿다

그리고 野外公堂에서는 京阪神合唱聯盟 千三百人의 奉納演奏가잇서 「神武天皇頌」을 奉唱하고 十時부터는 縣下中等學校生 靑年團員이 奈良市 春日神社를 出發하여 聖火를 바들고 橿原神宮에 向하는等 奉華로운 奉祝行事가 展開되엇다

【宮崎電話同盟】今日의 皇紀二千六百年의 紀元節을 마지하여 肇國의 二大聖地日向路는 奉祝의歡喜에 充滿되어잇다 惶恐하옵게도 神武天皇을 奉祭한 宮崎市官幣大社 宮崎神宮에서는 이날午前十一時 河合宮司以下 … 되엇다

天孫降臨祭臨時祭

【鹿兒島電話同盟】天孫瓊瓊杵尊을 奉祀하는 霧島神宮에서는每年 今上陛下御登極日인 十一月十日로써 天孫降臨祭를 執行하여 왓는데 今年은 가장 意義기픈 皇紀二千六百年을 마지하엿스므로 鹿兒島縣奉祝會가 主體가되어 十一日紀元節의 佳日에 寶祚의 無窮、聖壽의 萬歲를 奉祝하기 爲하여 古式을 본바다 特히 이곳에서 天孫降臨祭를 執行하엿다 早曉積雪을 밟고 靈峰의 中腹 古宮의 聖地에 參集하는者는 奉祝會員 學生 生徒 靑年團員一般縣民等 約一萬名으로 午前七時 먼저神籬의祭典을 開始하여坂本霧島神宮宮司 祝詞를奏하고 寶祚의無窮과 聖壽의萬歲를 祈願하고 다시 一千二百本의 神木을 縣下市町村에授與、繼續하여 紀元節奉祝式典에옮아 奉祝會長 藤野鹿兒島縣知事의 奉祝辭 奉祝頌歌의 齊唱이잇고 感激裡에 歷史的式典을마쳣다 그리고 猶

御赦附木杯下賜 重臣顯官七千餘名에

【東京電話同盟】光輝잇는 紀元節을 마지하사 惶恐하옵시게도 …

惶恐無地하옵신聖慮 今日! 兩大詔書渙發

【東京電話同盟】紀元二千六百年 빗나는 二月十一日 式年의 紀元節을 마지하여 一億國民이 모두 萬邦無比의 皇恩에 感激하여 全國一齊히 奉祝의 赤誠을 披瀝하여 佳節을 奉祝하엿다 이날 惶恐하옵시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이佳日을 紀念하옵시는 詔書를 渙發하사 全國民에 그聖旨하바를 明示하옵섯다

詔書

朕惟컨대 神武天皇 惟神의大道에 遵하사 一系無窮의 寶祚를 繼하시고 萬世不易의 丕基를定하사 天業을 經綸하옵셧다 歷朝相承하여 上으로仁愛의 化로써 下에及하게하고 下로忠厚의俗으로써 上에奉對하여 君民一體 朕의世에 逮하여 이에紀元二千六百年을 마지하다 方今非常世局에 際하여 이紀元佳節을 當한 爾等臣民은 마땅이 思慮를 神武天皇의 創業에 騁하여 皇圖의 宏遠하고 皇謨의 雄深함을 생각하여 和衷戮力、더욱 國體의 精華를 發揮하여 써 時艱克服을하여 써 國威의昂揚에 勗하고 祖宗의神靈에 奉對하기를 期하라

御名御璽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米內光政
外務大臣 有田八郎
大藏大臣 櫻內幸雄
陸軍大臣 畑俊六
海軍大臣 吉田善吾
農林大臣 島田俊雄
文部大臣 松浦鎭次郎
拓務大臣 小磯國昭
司法大臣 木村尙達
內務大臣 兒玉秀雄
厚生大臣 吉田茂
遞信大臣 勝正憲
商工大臣 藤原銀次郎
鐵道大臣 松野鶴平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神武天皇御卽位二千六百年 奉祝佳節에當하와 御仁慈를 널리 펴옵시는 恩赦의大詔를 渙發하옵셧다 皇室의御慶事、御不幸以外에도 國家의慶事에際하여 恩赦를 行하옵신것은 明治二十二年 憲法發布때와 昭和十三年 憲法發布五十年記念때외의 二回로 今回는 三回째이다 恩赦에 伴한 減刑令及 復權令은 紀元二千六百年에 際하여 내리우신 詔書와함께 十一日 官報號外로 公布되엿는바 今回 恩赦는 憲法發布五十年에 際한 恩赦보다 範圍가널버 司法省所管 減刑의 恩典에 浴할者 四萬四千人(現在受刑者四萬三千二百六十八人外에 假釋放及 執行猶豫中의 者를包含) 復權의 恩典을 입게되는者는 十六萬名에 達할것으로 推定되는데 恩赦에關한 詔書及 減刑令、復權令은 다음과갓다

詔書

朕 紀元二千六百年을 當하여 皇基는 더욱 굿고 國運은 益益 隆盛함을 懌하고 特히 有司에 命하여 恩赦의 事를 行케함 百僚衆庶 朕의 意를 體하라

御名御璽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

恩赦復詔奉拜코 宮本法務局長謹話

皇紀二千六百年에 …

減刑令

第一條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以前에 禁錮以上에 處한者로 그刑의執行前、執行猶豫中、執行中、執行停止 又는 假出獄中의者는 本令에依하여 그刑을 減刑함 但 그執行을 避한者는 此限에不在함

第二條 死刑은 이를 無期懲役으로함

第三條 無期懲役은 이를 二十年의 有期懲役으로하고 無期禁錮는 이를二十年의有期禁錮로함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에 七十歲以上의者及 犯時十六歲未滿의者에 對하여는 이를十五年의 懲役 又는禁錮로함

第四條 有期의懲役 又는禁錮에對하여는 左例에依하여 刑期를變更함

一、刑의執行을始作하지안흔者에對하여는 刑期의四分一을減함

二、刑의執行을 始作한者에對하여는 殘刑期의 二分一을減함 但 刑의執行이 刑期의二分一에達하지안흔者에對하여는 前號의例에依함

三、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에 七十歲以上의者及十六歲未滿의者에 對하여는 前二號의例에依하지안코 刑期의三分一을減함 短期와長期를 定하여 言渡한刑期에對하여는 短期及長期에對하여 前項의例에依함

但 犯時에十六才以上의 者로서 短期를經過한者에 對하여는 前項第二號의 計算을 하는데잇서서 年月又는 日의端數가 생기는 때에는 一年은 이를二十日로하여 一月은 이를二十日로하여 日의端數는 이를 除棄함

第五條 左에掲한 罪에對하여는 그刑을減刑치안홈

一、刑法 第七十三條及 第七十五條의罪

二、刑法第八十一條乃至第八十八條의罪

三、刑法第百八條의罪及그未遂罪

四、刑法第百四十八條의罪及그未遂罪

五、刑法第百八十一條의罪

六、刑法第二百條의 罪及그未遂罪

七、自己又는配偶者의直系尊屬에對하여 犯한刑法第二百四條의罪

八、刑法第二百五條第二項의罪

九、刑法第二百十八條第二項의罪及그罪를犯하여써 사람을死傷케한罪

十、刑法第二百二十條第二項의罪及그罪를犯하여써 사람을死傷케한罪

十一、刑法第二百三十六條、第二百三十八條又는 그未遂罪(但以前에强盜又는竊盜의行爲에依하여 刑에處하게된者에限함)

十二、刑法第二百四十條의罪及그未遂罪

十三、陸軍刑法第二十七條乃至第二十九條의罪及그未遂罪及豫備又는陰謀의罪

十四、海軍刑法第二十二條乃至第二十四條의罪及그未遂罪及豫備又는陰謀의罪

十五、軍機保護法第二條乃至第六條의罪及그未遂罪

十六、前各號에 掲한罪와 性質이同一한 舊法의罪

十七、朝鮮、臺灣、關東州又는 南洋群島에 施行되는法令의罪로 前各號에 掲한罪와 性質이同一한罪

第六條 併合罪에 對하여 併合하여 一個의 刑의言渡가잇슨 境遇에 그併合罪中 前條에掲한罪가잇는때는 減刑을 하지안흠 前條에 掲하지안흔 罪名에 抵觸되는 行爲로 同時의前條에 掲한 罪名에 抵觸되는時又는前條에 掲한罪의 手段又는 結果인時 前項파가틈

第七條 前에禁錮以上의 刑에處하게된者로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前十五年以內에大赦特赦減刑又는勅令에依하지안는 復權의恩赦를바다 그後七年以內에 禁錮以上의 刑에處하게된者에對하야는 그刑을 減刑치안흠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이를施行함

復權令

第一條 罰金以上의 刑의 言渡를 밧기때문에 資格을 喪失하거나 又는 停止된者로 그刑의 執行을 마추고 又는執行免除를 어든날로부터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의 前日까지에 十年以上을經過된者는復權함 但昭和五年二月十一日以後에再次罰金以上의 刑에 處한者는 此限에不在함

第二條 十八歲未滿時에罪를犯하여 死刑又는無期刑이아닌刑에 處한者로서 昭和十五年二月十一日前日까지에 그刑의執行을 마추고 又는 執行免除를어든 者는 그刑에處하기때문에 喪失又는停止된資格을 復權함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이를 施行함

八面鋒

◇오늘이 皇紀二千六百年의 佳節。

◇神武天皇의 八紘一宇의 大理想을 가지시고 橿原宮에 卽位하신 以來

◇皇威날로 떨치고 國勢 달로 빼처、

◇今日엔 皇威 東亞를 누르고 國勢 世界에 미처다。

◇一億民生 感激지 안흘것이어업스며

◇더욱 恩赦의大詔書 渙發하사 朝鮮서만 減刑된자 一萬五千、復權者 七萬에 達한다니、

◇皇恩의 廣大함을 느꼇嘆。

◇米國서 和平運動展開。

◇米國가튼 實力者가 仲裁하면 可能性은 豐富。

◇그러나 獨逸이 어떤 條件을 提出할게 可觀。

◇萬一 受諾하면 列强의 對蘇及對日關係가 注目嘆。

今日本紙四面

日曜氣配

▲株式 今週의 議會는 重要諸問題를 圍繞하고 本格的質問戰이 展開되엇섯는데 特別材料가업서 主力株는 依然히保合小往來를거듭하엿고 雜株는特殊材料가 包含되어잇는것만이 部分的으로 强調를뵈고 人絹、紡績株는 電力制限의打擊及資材原料不足으로 業績成果가念慮되어 活氣가업서休日中의 氣配도大體로 不變이엇다

大新 … 東新 … 鐘紡 … 鐘新 … 滿業 …

熊川 朱國寧

昌原郡熊川 熊川面事務所

慶南熊川漁業組合職員一同

慶南熊東漁業組合役職員一同

昌原郡學校評議員 崔善浩 慶南熊川

昌原郡熊川 海運業 田德祥

昌原郡熊川面友島里 友島振興會

昌原郡熊川面水島里 鄭昌僅

昌原郡熊川面 鎭海金融組合熊邑支所

昌原郡熊川面 熊川郵便所

昌原郡熊川面北部里 朱基讚

昌原郡熊川面三浦里 金正龍

昌原郡熊川面椽島里 椽島振興會

昌原郡熊川面椽島里 梁一浩

昌原郡熊川面椽島里 朴鳳龍

大同郡林原面長 韓昌俊

大同郡林原面 職員一同

大同郡靑龍面事務所 黃秉夏 外職員一同

裡里邑銅山町 張基俊

裡里邑 裡里病院 醫學博士 棉本弴壹(舊名 文教弴)

裡里京町 仕出し 七福 主 長富眞恒 電話二二四番

裡里邑榮町 金琪坤

裡里驛前 大興旅舘 主 具東順

益山郡五山面 面長 朴寧模

益山郡北一面 佛法研究會

益山郡八峰面 面長 梁在珉

裡里邑本町 李相基

益山郡裡里邑旭町 柳重哲

金堤郡白鷗面柳江里 金演植

裡里邑本町 普和堂藥房 電話二二三番

京義線石岩驛前 各種鍮器製造 石巖良大店 李一煥 金秉吉 金仁昌

京義線石岩驛前 大衆醫院 院長 鄭秉燁

京義線石岩驛前 三益商會

京義線石岩驛前 永盛乘合自動車部支店

石岩驛前 鐵道貨物取扱運送業 (二)荷主運輸組 主 李亨周

(廣惠院) (無順)
金聖鐸 梁玧錫 辻秀夫 申行雨 宮崎高次 方永模 洪淳玉 孫奎燁 金知庸 安基㴆 金鳳植 禹鳳奎 金基周 韓英根 蔡重錫 姜洙範 尹德萬 山 奎 李崎登 金鍾百 淳鐸
申喆均 劉洛源 中宇稱敏夫 李澤永 張東先 上田和夫 林長燮 李順宰 魚漢愚 金丙基 朴鏞喆 申連均 金高泰 安魯熙 金丙式 任乙植 南宮烋 朴長壽 禹鍾岳 閔寧植 李凡秀
秋仁求 裵相烈 崔正燮 吳殷泳 金昌卜 李必成 金相文 李思玉 閔俊植 咸順敬 李種冕 梁聖賢 朴 煜 李慶善 韓東植 鄭昌勳 尹吉學 沈承哲 崔文基

槐山酒造株式會社 振替京城二〇七〇〇番 電話一四番

忠北槐山邑內 美術印刷 各種紙物 文房諸具 官衙用達 合名活版所 主 郭晶圭

忠北槐山邑東部里 和食洋食 朝鮮料理 第一舘 電話一八番 藝妓 崔丁李李 鎭松錦香 紅竹玉紅 金楊李金 春蓮菊明 玉花玉仙

槐山郡 延豊面事務所

忠北槐山郡 牧渡金融組合

槐山面 面長 金宜植 主任 金鍾樂

八域에넘친肇國讃揚의怒濤

瑞氣·坊坊曲曲에瀰滿
歷史的佳節의感激
今日午前九時·國民奉祝時間을期하여
一齊爆發된萬歲聲!

만고에 빗나는 조국(肇國)의정신을 발양하는 기원이천륙백년가절인 소화십오년의기원절은 마친내 돌아와다 이날오전 구시를 전후하여 전조선 국, 관, 공청, 학교, 민간각단체를 비롯하여 이천삼백만민중은 추풍원전으로 서로공공하여 기원절봉축식 즉 국민봉축식을 가장 엄숙하게거행하엿다 그리하여 흥아(興亞)유신의 성업(聖業)달성에 의의기픈 적성의정차를 가장 정성스럽게 마치엇다 이와가치 뜻기피빗나는 기원이천륙백년의 가절을마지한 전조선각사상은 극히경건한마음에서 나오는봉축의인쇄로써 차란히장식되엇다 그리고 또이기념할 이가절을 당하여 총독부에서는 남총독(南總督)의담화를 발표하여 전조선관민에게 조국의 정신발양을 강조하는동시에 황공하옵게도 환발하옵신 은사대조(恩赦大詔)를 봉대한것을 공포하여 배에산입업는따뜻한 천창을통하여 도한감읍(感泣)하게하엿다

朝鮮神宮祭儀嚴肅

신무조국(神武肇國)의 정신이 신동아에 빗나는 제국의 대위 전진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 중대사명을 수행하고잇는 전조선이 맘명의 이천육백년기원가절을 마지하여 금신을입이 천상백만민중은 봉축의 적성을다하는동시에 전체일치하여 그총력

발회에 일본매지합 경성을 새롭게하고잇는 이날조선신궁에서는 오전구시사십분부터 기원절제(紀元節祭)를 특히 대제의(大祭儀)에 의하여 엄숙히거행하엿다 전날밤부터 폐백공진사(供進使)로서 칙사전(勅使殿)에참여

寫眞說明……우로부터 조선신궁의 기원절제, 총독부의 배하식, 조선신궁의 화생연맹봉축식, 경기도청의사회사업공로자표창식

全朝鮮各神社
一齊赤誠의盛儀執行

이날경성신사에서는 오전시부터 기원절제를 가장엄숙히거행하엿는데 이와동시에 전조선의신사(神社)와 신사(神祠)에서도일제히 제전을성대히 거행하여전조선민중의 직성으로써 황운의 유구번영을 시전(神前)에 기원하엿다

總督府拜賀式

東京(?)총독부중의 산전체신국장(山田遞信局長總督代理)을 바로하여 군, 관, 민가방연대표 일삼백명이 참렬하여극히 삼엄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엇다

의의갑고 뜻깁흔 기원이천육백년 기원가절인 십일일 한 총독부에서는 오전구시에정문전광장에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이하 전직원이참집하여 기원이천육백년봉축식을 거행한후 계속하여 동십분부터 제일회의실에서 어사진봉배식을 거행하엿다 일동은 총독부대표의 예진하여 냉주를들고 성수만세를 삼창하엿다

李王職의諸式

이왕직의 기원절축하식은 오전아홉시 인정전동행각(仁政殿東行閣)에서 이(李)차관이하가참렬하여 엄숙히 거행되엇는데동일오후한시부터는 비원내영화당압에서 전직원이 열석하여 기원이천육백년봉축식이 거행되엿다 식은 국기게양,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제창의 뒤를이어 이차관의봉축사가 잇섯고 아악부원기원절창가와 기원이천육백년의봉가합창이 잇슨다음성수만세의봉창으로 식을마치엇는데 식이끗난후곳 술을드리며 빗나는 기원이천육백년을 봉축하고 조선신궁으로가서 단체참배하엿다

京城府奉祝式

이날 경성부에서는 오전열시오십분부터 일천삼백명직원이모혀서 봉축식을엄숙히거행하엿다 오후한시부터는 다시회의실에서 총후보국과 저축장려운동과 정동연맹(精動聯盟)주최우량단에대한 표창식이 잇섯고 폐품회수운동에서 가장성적을내인정동삼판정연맹(三坂町聯盟)에대하여 조성금(助成金)을 전달하엿다

朝鮮映畵人協會
今日第一回定總
機關紙發行等決定

아프로 조선에도 실시될 영화령에 협력하기위하여 조선안 영화인 백여명으로써 조선영화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저 얼마전에 결성을보게된 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畵人協會)에서는 십일일오후한시 본사내강당에서 총독부 청수(淸水)이사관외의다수래빈이 참석한가운데 제일회정기총회를열고임원영화인연맹에가입할것, 기관지를발행할것, 영화령기념전을개최할것등을 토의결정한후 동세시쯤에폐회하고 곳이어 전원은 조선신궁에가서 참배동고하엿다

銀盤의新銳
李孝昌君이制覇

朝鮮氷上競技選手權大會第二日은 今十一日午前九時부터 淸凉里綜合競技場에서 前日에繼續하여 男子千五百米『레-스』부터 始作하바 氷質이上好으로 因하여 良好한成績을 어지못한것은 큰遺憾이엇다 이날 男子千五百米競技에는 松中의 李孝昌君이二分三十五秒三으로 第一位를 獲得하고 安州의 金殷鎭君이 二分三十八秒二로 第二位를 占하엿다 男子五千米『레-스』에도松中의 李孝昌君이 九分十五秒三으로 第一位를占하여 同大會一回의 綜合選手權에 總得點二一一、六七九로 栄冠의優勝을獲得하엿다 李孝昌君은 松中의二年生으로 古豪選手들을 물리치고 少壯新銳로 制覇한것이다 第二位는安州의 金殷鎭君이 總得點二一二、一〇三으로 占하엿다

女子 千米『레-스』에는 龍谷의 鶴谷嬢이 二分五秒八로第一位를 得하고 第二位는 勝川嬢이 二分十四秒六으로 占하엿고 女子三千米『레-스』에는 龍谷의鶴谷嬢이 七分二十二秒六으로 第一位를獲得하고 總督府의 田代嬢이 七分四十四秒一로 第二位를占하엿다 그래서女子部의總得點으로는 龍谷의鶴谷嬢이 一八六、六六六으로 優勝을하고 第二位는 亦是龍谷의勝川嬢이 一九八、九六六으로 占하고 同校의金淑在嬢은 二〇三、九一六으로 第四位가되엇다 男女選手들의成績은 다음과갓다

◇男子總得點順位

1	李孝昌(松中)	二一一、六七九
2	金殷鎭(安州)	二一二、一〇三
3	金興奭(新義州)	二一四、六一九
4	李熙正(協實)	二一六、八三三
5	安重熙(道廳)	二一六、七五〇
6	金寬鉉(新義州)	二二一、二一九
7	洪錫萬(府廳)	二二二、二六三
8	趙東爕(咸興)	二二五、二四九
9	朴雲璉(普專)	二二七、〇〇六
10	李明昊(崇商)	二二九、六三六
11	李仁信(培材)	二三五、五七六

◇女子總得點順位

1	鶴谷(龍谷)	一八六、六六六
2	勝川(同)	一九八、九六六
3	中村(同)	二〇〇、六八三
4	金淑在(同德)	二〇三、九一六
5	淺井(龍谷)	二〇六、一三三
6	田代(總府)	二〇六、二五〇
7	韓貴順(梨專)	二〇七、六六六
8	勝川(第二)	二〇八、六三三
9	徐丙孫(京保)	二一一、三〇〇

延專軍優勝
對京師氷上하키戰에

朝鮮氷上하키-選手權爭奪戰인 延專對京師戰은 今十一日午後一時에淸凉里『링크』에서 宮川審判氏指揮下에 擧行된바 結局接戰끝에 延專軍이 三對一로優勝하엿다

延專 3 (2-0, 1-0, 0-1) 1 京師

朝鮮內、恩赦에浴한者
減刑一萬五千、復權七萬餘
鴻大無邊하옵신聖恩·囹圄에서도感泣

세계에찬연히빗나는 황기이천육백년의 기원가절인 금이월십일일의 조훈을마지하여 지엄하옵신측에서는 황기(皇紀)가더욱국운이더욱 융성함을가상하시고 기쁘심을 널리국민에게까지 나우시는 황공무지한성려(聖慮)로 은사(恩赦)의대조(大詔)를 환발하옵시잇다

이날공포된 은사의칙령에의하면 감형(減刑)과 복권(復權)을 비롯하여 판리, 공증인(公證人) 변호사, 사법서사기타에대한 징계(懲戒)와 징벌(懲罰)을 면제하는것으로 이번에 감형령(減刑令)에는 특히 죄명을 제한하지안코 널리 일반범죄에까지널리은전을내리신것이다

다만 황실에 대한죄, 외환(外患)에대한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통신위조죄외 존속(尊屬)살인죄, 동상해죄, 동상해치사죄 동유기죄, 강절도전과자가 다시범한강도죄, 강도치사상죄, 강도강간죄와 동치사상죄와 군기보호법위반죄(軍機保護法違反)등 극히나쁜범죄만을 감해엿다 그래서 조선에서만 감형의 은전을 입을사람이 약일만오천명이고 복권의 은전을입을사람은 칠만여명으로 하게합만오천명의 만흔사람이 망대무변한 황은에 욕하게된것이다그들은 오른지 성은을 홈앙하여 영구히그감격을 명심하게될것은 물론일반국민역시 우악(優渥)하옵신시지를 바들어황국신민으로서의감격을 새로히하여 관민일치하여 그큰의 원호(援護)에 힘써 황은의만분지일에 보답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減刑·復權範圍

【東京電話同盟】 이번의 감형은 감형령에 발킨바와가치 존속살상, 외환, 통화위조, 강도, 살인강도등 전쟁잇는자의강도, 주택방화군기보호법위반의죄를 제하고 그이외의죄를범하여 사형 징역 금고의형에처하여 이월십일일현재 판결이확정된자는 현재복역중에잇는자나 집행유예중에잇는사나 일제히 감형의은전을받게된다 그리고 그감형은 사형은 무기로 무기는 유기이십년으로감형되고 또판결은 확정되엇스나 아직 집행에착수하지안흔자에게는 형기의 사분지일 이미 집행에 착수하여 전형기의 이분지일 미만자에게도 잔형기의사분지일을 이미 전형기의이분지일을 초과한자에게도 잔형기의 이분지일을 감하는데 은사를밧고 또 십오년내에 죄를범한자와 현재 도망중에 잇는자는 은전을 바들수가업다 또 복권되는사람은 벌금이상의형에 처벌된자로서 형의집행을맞마치고 금년이월십일까지에 만십년을 경과한자는 모두 복권되는데 그중다시 범죄한자는 은전을바들수가업다 이복권의증명을어드려는자는 본인직할지방검사국에신청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이에관한 사법성고시가공포되엇다

城東驛下車客中
痘患者發見

십일일오전열시쯤 동대문밖경춘철도 성동역(城東驛)에 나린여객중 열이심하여 고민하는사람이 잇는것을 동대문서원이발견하고 시절이시절인만치 때를옴기지안코 공본서에보고하여경찰의의진찰을마튼결과 진성천연두로판명되엇다 그런데이여객은 가평군외서면 청평리(加平郡外西面淸平里) 에사는 영목의부(鈴木義夫)로 십일날아침가평역에서 차에 올라 경성으로오던중 차속에서 발병하엿다는것으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곳동역대합실과 객차를 소독하는한편 환자는 순화병원에 입원격리시켯다

列車追突
機關助手一名卽死
平澤驛構內事故

【警務局發表】 십일일아츰일곱시십일분 대전을떠나 경성으로향하던 일천일백십일호화물열차가 경부선 평택역(平澤驛)구내에정거하고잇는데 부산을 떠나 북천으로향하는 제사십삼호 객차가 뒤로들이박어 화물열차 맨끗에 달렷던 기동차를 부시고 화물차두개가 전복되어 개여진중률 사고가이러낫다 이때문에 화물차승무원 대전기관구(大田機關區) 기관조수 길영철웅(吉永哲雄)씨는 즉사하고 객차의 기관사도 "뼈리"이부서저 운전할수업게되어 다른기관차로 운전한결과 경성역에는 세시간이나 느게도착되엇는데 손님은다행히 무사하엿다

災地副業原料
運賃三割引

철도국에서는 한재지 이재민의부업원료운반에는 집화되어보내는화물을 삼할인하기로 결정하엿다 일간에 총독부고시로서발표하게될터인데 할인기간은 고시한날부터 시월삼십일일까지이며 국선으로부터 경성이남각역에도착하는것만 적용하기로되엇다

第一日四十餘名
今日부터開始된創氏屆出

십일일의 이천육백년 기원절을마시하여 실시된 조선사람의 씨제도는 수속절수의첫날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출접수를 개시하여 오전아홉시부터 시작되엇다 이개정된 조선민사령은 재래조선가족제에대한 획기적개혁인만큼 특히내지식 씨창설이 상당한수에 달할것이 짐작되는데 이날오후세시반까지의 경성부에 접수된것은 사십명으로 사무마감인 네시까지에 열건이 더들어오리라는 예측을세워 오십건내외에 지나지 못하엿다 그래도 수속개시첫날의 그성적으로서는 조흔성적을 어덧다고 할만하엿다 제일착으로 창씨계출을한사람은광희정(光熙町)이정목일백삼십삼번지 양중상 김형순(金炯順)씨의 백촌(白村)이라는 씨창설계출이엇스며 그밧게 이날씨창설로수속한분들은 다음과갓다

(사진은 경성부의접수사무)

◀黃金町四六의二三 辯護士李升雨는「梧村」
◀淸雲町一〇六의九 朝鮮農業社長 曹秉相氏는「夏山」
◀昭格町一四九의二 地主梁在昶氏는「梁川」

餘錄

오늘 황기이천륙백년의기원절을 마지하여서울 장안은 아침부터 봉축기분이 넘친다◀그동안 삼한사온의 법측을 무시하고얼마 계속하던 추이도어느듯바람 아주봄날이다 오늘은 넘부터 바로 화하여 어제저녁부터는 나즈나 온화한날이 봉축날씨로 다시이룰데업다◀장안시민은 아침부터 정신총동원연맹의 구호아래, 가가호호가 정회의봉축식에 참여하고뒤이어 남산의신궁으로 참배자는 끄니지안는다◀날도따뜻하다하지만 이날거리에는 본래부터 유명한 만원전차가 한결더부푼다 이역시 봉축기분이 넘치는것으로 볼진대 평소의불평도 이날만은 얼마큼 참어도조흘것이다◀이가치하여 이봄의봄날은 기원가절부터 시작되엇 만물의생기는 이제부터 더욱힘있게동하려한다◀바로 때가성전제사년에들어가는이때라 국민은 각오를더욱두터히하여 만난을이겨나갈것을 한번더 맹세할바이다◀파연 국민의앞길에 더어려운난관이 압헤 더할것잇스면도쎄이다

曆

二月十二日(月曜日)陰正月五日
◀干支 乙酉◀日出 午前七時二八分◀日南中 午後零時四八分◀日入 午後六時八分
◀滿潮 一〇時四〇分◀月出 午前九時卅分◀月入 午後九時四八分◀滿潮 午前七時三五分 午後七時四五分

廣告

芳香 ハイナシン 一吹必殺

바른證書·願屆는 이러케쓴다
아무리어려운證書·願書라도이한冊으로 아무라도 제손으로 쉽게쓸수잇다
日常生活上에 時時로부듸치는 證書類의쓰는法처럼 모르면意外의失敗와 큰損失을招하는 일이 만흔것이다 이번當社에서새로 刊行된 『證書の書き方』는누구에게나 實로便利한冊이다 金錢貸借을부터 兵事關係는勿論, 賣買, 讓渡, 貸人, 請願, 屆出, 抵當, 登記, 戶籍, 寄留, 營業, 納稅事項, 民事小事, 人事訴訟手續其他一切의諸證書申請申立書의書類와書式을 詳細하게說明 大判上製美本 定價一圓이나 送料無料 振替東京一六四三五一番

住宅地分讓處分 住宅地 別莊地 交通便利 新興建築社

幹部社員募集 日淸生命保險會社 京城府鍾路永保ビル

社員募集 愛國生命保險會社 第一支部

월경 朝報院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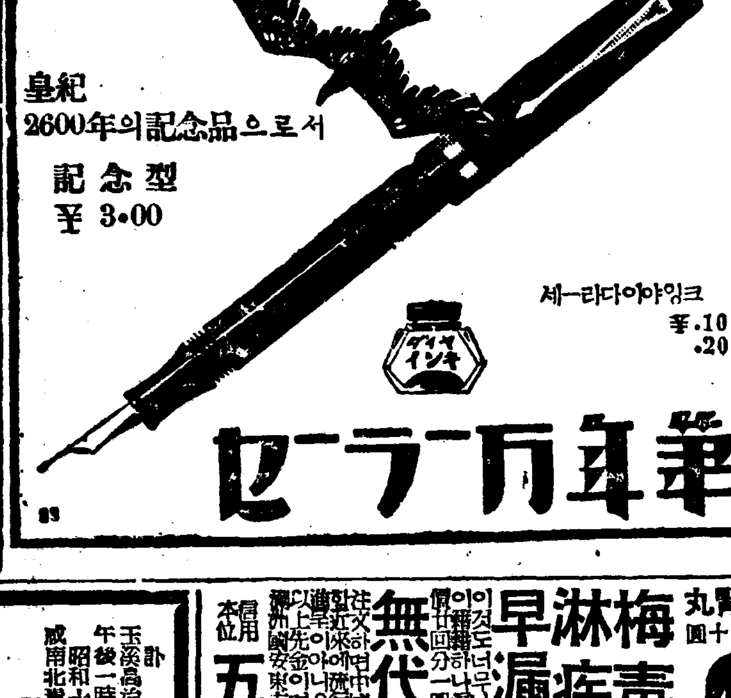
時計士養成 京城府 時計修理院

京城偃華館前 高級寫眞 金剛寫場 電光三三七八番

治淋內服特效劑 チ-ユ-サイド G-U-CIDE 效果 本位

月賦建築 設計監督 工事請負 建築報國 建築資金貸付 無料建築相談部 電(本)1681 1381 黃金町二ノ五五 東京建物株式會社

本社慶南支社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 惡性腫瘍과 骨髓에 기피든어렵고、오래된瘡毒을 잘낫게함 製造本舖 慈祥局

HHH 最高級品
靴를 튼튼케하는 サンエッチ 靴クリーム

完全한 養毛整髮效果
굉장한整髮効果에強力한藥用効果를具備하지안으면完全한香油라고는할수업습니다 キンツル는植物性油中에서脂肪酸系養毛料第一位라고하는椿油를基本原料로하고牛毛素코레스테린의配合에依해서毛根에새로운促伸力을줍니다。

金鶴香油

訃告
玉溪高治完氏去二月三日午後一時逝世玆以訃告
昭和十五年二月八日
咸南北靑郡新昌面土城里
嗣子 柄澤 柄南

五行公司 無代進呈

早漏防止 梅毒淋疾
淸導補腎丸

強精強性樂

延長百廿키로의 山火防止線設置
忠南森林資源確保策

【忠南支社發】충남도내에는 총연장삼백키로의 철도선로가 통하고잇지고잇는데 기관차에서떠러지는 불똥(煤煙)이 산불을일으켜 매년상당한피해를 보고잇다고한다 이것은 산림자원의애호에잇서커다란문제이라하여 이에대비할산화방지선(山火防止線)을 설치해서 용재자원의확보를 기하고저 방금산림과에서 계획을진행하고잇다 계획중에잇는 산화방지선은 경부철도(京釜鐵道)연선에중점을두고 경부, 호남간선에도 부분부분이 설치할터인데 이것의총연장이 일백이십키로―조선이수삼백키로―에달하고잇다 그리고 한편으로 일반도민에게도산불에대한조심을 극력선전하라는것을 일러주기로하엿다

産金懇談會
九日全南서開催

【全南支社發】전남도산금간담회를 구일도회의실에서 개최한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예정대로 구일오전열시부터 총독부목야(木野)산금과장외미테 좌좌목(佐佐木)전남산업부장뉴재로도내각지 금산(金山)주인 약사십여명이 출석하여 시국에관한몃가지식순과 식산국장 전남산패(新貝)지사의인사말이잇슨후 지시(指示)사항에 관하여 토의가잇섯고 오후에서산회하엿다 동회의의 지시도의사항은 다음과갓다

◇指示事項

一、昭和十五年度産金計畫의遂行에關한件
二、産金獎勵上必要한資材配給에關한件
三、産金施設의利用促進에關한件
四、關係官廳과連絡協調에關한件
五、日本産金振興株式會社及朝鮮金山開發株式會社의利用에關한件
六、鑛業者施設料其代用的利用에關한件
七、未稼行及休業鑛區稼行促進에關한件
八、含金鑛石의濫散防止에關한件
九、鑛山火災豫防에關한件

都市의發展을爲해 地價抑壓策考慮
八卷平南土木課長歸任談

【平南支社發】각도토목과장협의회에 출석하엿던 팔권(八卷)평남토목과장은 팔일밤귀임하여 다음과가치 말한바잇는데 이는최근특히 토지투기가 맹열한 평양부동산매매가에 적지안흔 자극을준모양이다

『시가지의지가폭등은 특히서부선각도시의 중대문제로서여러가지의견이잇섯는데 물론지가의 부당한앙등은 도시의건전한 발전을실히 저지하는것이므로 총독부당국에서도 목하 단호한강행수단을 고려중인모양으로 하로라도속히 지가앙등억압방책을 결정실시하는데대하여 각도가모다 절대한기대를표명하엿다』

트렁크窃取犯 逮捕

【慶南支社發】지난십일 부산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잇는여객의 트렁크를 절취도주하려는자를 역전파출소원이 발견체포하여 취조한결과 그는시내 영주정(瀛州町)삼백십이번지에사는하일수(河一守)(二〇)라는자로서 부산역 초량역 잔교등지에여객을 대로 여객들의트렁크 절취상습범이라하며 피해의정도는 이미발각된것이 약수천원에 달한다한다

釜山工校의 生徒募集規定

【慶南支社發】부산공업학교에서는 작보한바가치 오는사월일일 신학기부터 개교하리라는데 다음에 의하여 생도를 모집하리라한다

一、募集人員
機械科 約四十名
應用化學科 約四十名
建築科 約三十名
◇修業年限 各科共五年
◇志願者資格 年齡滿十二歲以上(昭和三年四月一日以前出生者)로서 小學校六年卒業者 又는 三月卒業者
◇出願手續
出願期日 二月十日부터 二月末日까지
提出書類 入學願書、身元引受人、納稅證明、戶籍抄本、寫眞試驗手數料 三圓
◇入學考査 三月十日、十一日、十二日、十三日、十四日 五日間
◇考査種目 學科試問 國語(綴方、讀方、聽取)身體檢査、口頭試驗
◇考査場所 釜山府寶水町 釜山公立職業學校

惠山鎭思想事件
犯人逮捕殊勳의全貌

【咸南支社發】기보=혜산진(惠山鎭)사건은 그일부유파만이 해이대사건을 검거하경찰관들의 고심은 것이엇다 경찰부최(崔)경부는 그수하는데잇서서 부하과함께 화전민(火田民)으로 변장하고서 밀림내에 야숙(野宿)하기를 한달은 대격투끗테 체포하엿다 그리고 금야(今野)순사게로서 최경부의상의행을 무릅쓰고 출동하엿는데 그중 동신대장외네명을검거 그의잔복한집에들어가서 점선발견중을 합부분쓰는것을 그냥잡고서 유바전으로대격투끗테 다서명을 체포하엿다 그리고 촌전(村田)순사부장는비적이 조선내에 침입한것을 탐지하고서 그의숨은집을 포위하여 덮는데 비적은 곳곳을 날자하여 저에게 무둘을 떠치는데다해하 모자의 의복을 파를하고서 사람의 부상은업섯는데 이용감한 행동에는 일반이감격하고잇다

痘患續續發生으로 慶州市民不安

【羅州】전남나주군남평면우산리에 천연두환자가 발생하엿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어제 또다시 나주읍남계리(羅州邑南溪里)에 환자두명이 발생하엿고 다도면(茶道面)에도 환자한명이발생하여 나주주민들은 불안중에잇다 나주경찰서 위생계위생기수일은 매일서원 십여명식대동하고 회사방역에 출장하여 방역에 전력을다하는중이며 나주읍민에게는 매일수천명식종두를 실시하는중이다

價格引上不應으로 豆腐業者續續廢業

【全南支社發】광주부내에 두부(豆腐)업자는 전부, 열네명으로 두부의 원료인콩이 예년에몃두업만지 폭등한물론 기타원료가 전부앙등된것이엇서 경영하기가 곤란하니 두부한모에육전하는것을 팔전으로 또는「곤야구」한개에 육전하는것을 구전으로도 각각가격을 올리겟다는 진정을 광주상공회의소를통하여 경찰당국에 요청하엿스나 당국에서는 그를 공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겟다고하여 금월하순에 올까위원회에 회부제외하기로 목하 심정조사를 하고잇는데 대개두부업자들은 소자본으로하고잇는판계상 공정가격결정시기까지 가기전에 벌써부터속속폐업자가 나타나고잇서 광주에는 두부기근을보고잇다

歲入不足補充策으로 稅率引上키로決定
全南道서三十萬圓을增徵

【全南支社發】전남도는 작년의 대한재로인하여 도세입(道歲入)이 약삼십만원의감소를 보이게되어 소화십사년도 사업에잇서도 허다나 히생한것이잇섯스나 더욱이신년도 즉소화십오년도예산을 편성하고잇는 도당국으로서는 적지안흔고심을 하고잇서는종래의 세률에증세(增稅)를하신세설정(新稅設定)을하느냐에관하여는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총독부에서 팔일과구일에 각도지방과장회의에서 상급관청으로부터 증세용인을엇고 십일아침에 귀임한 송택(松澤)전남지방과장은 도지사실에서 김(金)내무부장 삼씨가모아 지방과장회의의경과보고와증세신세방침에대하여 협의하엿는데 결국세률(稅率)을 올리기로되어 종목에잇서는 지방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가옥세(地方稅附加稅, 營業稅, 附加稅, 家屋稅)등을 조금씩 더중하게하여 약삼십만원내외도 할것이며 신세설정(新稅設定)은 실행치안홀터이라한다그리고 금번세율증가는 일반도민의 부담이 다소증가될터이나복표를 유산층에 부담이 중하고 중산층이하 계급에게는 적으나 경하게할터이라한다

乞人이凍死

【全南支社發】금년에는 예년에 볼수업는 혹한으로 각지에서동사자가 만히잇는 이즈음에 남

대도 절도를하다가 영산포주재소김(金)형사에게 체포되어 나주서로 압송하여와서 그동안취조한결과 절도건수 삼십여건 그의피해액은 천여원에 달한다는바 근일중에 송국하리라한다

急行하는列車에 青年一名醉中轢死

【球場】지난구일오전이시에만포선신흥구장(新興球場)간을진행하는 열차에 영변군 용산면 봉운동 변린두(邊麟斗)이술을 잔득먹고 집으로도라가는도중 무참이즉사하엿다한다

爲替手形僞造犯 平壤署서逮捕嚴調中
數百回에約十五萬圓을詐取

【平南支社發】부호 흥은거상인들의실인을 석판으로 인쇄하여 위조수형을 발행하던 인쇄업자―그는 평양부내 욱정(旭町)욱창당인쇄소(旭昌堂印刷所)주인 김영식(金永植)(二〇)으로 더판업을 하고잇는것을 호기회로 삼년전부터 신용할만한 사람들의 실인을 석판에그려올려서는 각종가지 위체수형을 인쇄한다음 금액은 마음대로 기입하고 잘아는집으로다니며 기일전에 자기가 차저갈것을 약속하엿다가 차저가군한것이 지금까지 수백회에 그금액도 십오만원에달하고잇다 그러나 평양서에 인치된 현재 미결제금액은 약일만원으도 실제에잇서 피해액은 이금액뿐인데 깁은 원래근실하여 세평이 조흔사람으로 그피해액을 가펴주겟다고까지하는 친지가 상당히만흣다 범죄가범죄이니만큼 처벌은 면치못할모양이라한다

延吉工業校新築
七十萬圓에不遠起工

【間島支社發】간도연길공업학교(間島延吉工業學校)에서는 교사를신축하기로 작정되엇는데 장소는 연길가남구(延吉街河南區)에잇는 대동주정회사와 간도표포(間島苗圃)자리에다가삼개년계획으로 총공비 칠십만원예산으로 신축하기로 되엇는데 해동기를 기다려 신축에 착수하리라한다

少年窃盜團捕盡

【羅州】영산포읍이창리(榮山浦邑二倉里)에잇는 김한수(金翰洙)(二〇)외 문오복(文五福)장명진(張明鎭)김태곤(金泰坤)이재봉(李在奉)등 소년절도단은 작년부터 금년까지영산포지내를 횡행하면서 닥치는

"日本精神에立脚 教役者를養成하라"
平壤神學校認可에際해道當局談

【平南支社發】오래동안문제되어잇던 장로교총회경영의 평양신학교가 십일인가되엇는데 관하여 평남도당국에서는 다음과가튼 담화를발표하여 동교가 아프로일본정신에입각한 기독교건설에공헌이잇슬것을 기대하는뜻으로 그전도를 축복하엿다그리고 동교의교사는 현재구산학교생도들이 수업을 밧고잇는 동평양전동쪽(同德)학교 짜리교사를 그대로 쓰기로 되엇고 초대교장은 채필근(蔡弼近)씨로 내정되엇다

平壤神學校設立認可에 際하여 道當局 談

今回平壤神學校의 設立이認可되엇습니다 從來의 通稱平壤神學校라는 것은 明治三十六年의 設立된것으로 名目만은 朝鮮耶穌敎 長老會總會와 外人宣敎師會와의 共同經營이엇지만 實際에잇서서는 宣敎師團의 單獨經營으로 正規의 認可를 受하지안코 經營하여온것인데 마침내 再昨年 三月同敎派 系統의 崇實專門學校外二校의 神社不參拜 問題에 發端하여 廢校된데 따라 此 神學校도 同九月부터 總督에는 何等의 通告업시 擅斷休校하여 再三의 懇諭이잇섯슴에도 不拘하고 正規의 學校로서 復活할 意思가 업다고 認定하고 該敎派半島人側 有志는 奮然蹶起하여 昨年九月 同敎派 最高機關인 總會를 新義州에서 開催하고 其決議에 依하여 從前의 神學校와는 全然無關係로 同種學校를 新設하려고 設立認可申請에 及한것인데 本校는 其學則의 第一條에 示하는바와 如히 『基督敎會의 敎役者될에 須要한 日本的神學에 關한 學術을 敎授하고 特히 人格의 陶冶及 國體觀念의 涵養에 留意하여써 忠良有爲한 皇國臣民을 養成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는것으로 舊態를 脫却하고 새로운出發을 하게된것은 設立關係者는 勿論 三十七萬同胞敎派 信徒와 共히 國家를 爲하여 慶賀不堪하는 바입니다 此를 契機로하고 半島에 이르기까지 日本精神에 醇化된 훌륭한 敎役者의 輩出되는것도 不遠한 將來이라고 밋고잇습니다

金知事初巡機會로 豐川有志들陳情
水組、松禾分院設置等

【豐川】약진도상에잇는 황해도서부지방에서는 김(金)지사의도내초순시를 기회로 서부각군지방유지들이 궐기하여 자기지방마다의 긴급문제를 해결코저 지사에게 진정중인데 송화(松禾)군에서는 가장 긴급하고 현안문제인 풍천수리조합설치 도립의원송화분원설치 실업학교설치 초도(椒島)어항설치 등과 그밧게도 이삼의 현안문제를 기어 경을하엿다는데 김지사로부터도 지방현안문제인 전기제문제를 필요도 인정하는동시 해결할려면에 노력하겟다는의사(意思)를 표현하여 군민전체는 기뻐하고잇스며 김지사에대한 기대가 크다고한다

志願兵應募美談

【綾州】전남화순군 청풍면차리(和順郡淸豐面車里)양원종(梁源)씨는 전번청풍면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주최미테개최한 지원병응모에관한 좌담회석상에서 박군수이하 각강사의열변에 감동되어 우리가정에서도 용사를 내어 황국신민이되겟다는 열정으로 수속을밟엇다는데 씨는집식을 생각지안코 가가호호를방문하여 열정으로 지원병제도의 취지와 이유를 일반에게 설명한탓으로 면내일반청년은 기갈동되어 십여명의지원자가 속출하엿다는데 동양씨는 대판(大阪)에출가중인 차남 양동준(梁東俊)(二)군을 지원케하엿다고한다

榮山浦紳士賭博團
十餘名에게罰金刑

【羅州】지난삼일영산포읍 영산포에서 유수한신사들을 신모(申某)노모(盧某)이모(李某)외 칠팔명이 수자에이르는록 수천원찌겁고 도박을하다가 발각되어 이번에 나주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전부벌금형에 처하엿다는데 최고 백원으로부터 최저이십원까지라한다

金庫窃盜犯送局

【伊川】무직한 농민이 금고속의돈을 탐내어 훔치기는 하엿으나 금고를열줄몰라 그림의떡가치 돈든금고만보고 잇다가그만발견체포되엇다 지난달삼십일밤 아홉시쯤 이천군 방장면 구당리(方丈面舊塘里)에서 잡화상을하는 김재현(金在鉉)의집에서 현금백이십팔원이 드러잇는 수제금고를 어떠한자가 절취하여간 사실이잇서 가려주재소(佳麗洲駐在所)에서는 곳범인수사에 노력한결과지난이일에 용의자로 방장면용지리(方丈面龍池里)이백팔십구번지에 거주하는 김종률(金鍾律)(二一)을 인치하고엄중한 취조를한바 전후사실을 자백하여 지난십일 일건서류와함께 철원검사분국(鐵原檢事分局)으로 송치하엿다고한다

北馬南船

◀장성군장성면수산리(長城郡長城面壽山里)황재근(黃在根)의 집고용인 성자군(成子君)은 ◀팔일오후일시에 주인의 부엌에 불을때려고 불어커를너라가◀부엌안에서 잠자던 열한살된 어린거지가 타서 죽엇다한다(光州)

墳墓盜掘詐欺漢 公州署逮捕嚴調

【公州】변신고흔데엇다고 곰배따리에 절빈하로 낫노코「자한자모믈는 무엇장이 작대기지판이 남의돈을 탈취하려고 남의분묘를파고 시체를 발하려간 가중남중수경찰서에서 엄마전부터 비상한활동을하여 작대기지판 유진옥(劉鎭玉)(二六)과 공모자 정창봉(鄭昌奉)(三二)등을 검거취조한결과 분묘를파고 시체를 감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그내용을듯건대 논산군두마면 향한리(論山郡豆磨面香汗里)에두고 각처로돌아다니며 작대기 지판으로 남의묘스자리를 잡아주는것을 영업으로하는자인데 청양군정산면역촌리(靑陽郡定山面驛村里)사는 정창봉(鄭昌奉)과 가튼동리 장갑순(張甲淳)(三二)등 삼인이 공모하고 작년음력시월 이십구일밤에 공주군 계룡면내흥리(公州郡鷄龍面乃興里)에서 동면구왕리(同面九旺里)에사는백모(白某)의 부친분묘를파서 시체를파내어참혹히도 시체의상반신을 잘러다가 동면중장리(中壯里)공동묘지에 감추고잇는것을 나중알게된백씨가족은 그곳주재소에 고발하는등 사면으로 탐지하던중 전기유진옥이가 절취자서 알어내고하여 돈육십원을주고 점을처서시체를차젓는데 이사실을 탐지한 당지경찰은 즉시활동을 개시하여 범인을포착하엿다한다

三國志 【96】
韓龍雲 譯　熊超 畵

奇術의借貸(四)

조조가 허도에 이르러서 전위를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아들 전만(典滿)으로 중랑(中郞)을삼아 부중에두고 거더 기르게하엿다

홀연히 손책의사자가 편지를 드리거늘 조조가 글을보더니 또 사람이 보하되 원술이 양식이 다하여 진류를 겁박한다 하는지라 조조가 원술의 반항을다서 치고자하여 군사들을일켜 남으로 올새 조인으로 하여금 허도를 지키게하고 그 남어지는 다 따르게하니 마보군이 십칠만이요 양식과 치중이 천여수레라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어 손책 유비 여포를 합하게하고 예장지경에 이르니 현덕이 벌써 군사를이끌고 아페나와 맛는지라 조조가 현덕을 청하여 서로볼새 현덕이 머리 두개를 드리거늘 조조가 놀내어 묻되

『이것이 누구의 머리뇨』

『이는 한섬 양봉의 머리로다』

『어찌하여 어더쓰뇨』

『여포가 권도로 이두사람을기모와 낭아 두고엿에 머므르게 하엿는데 뜻밧게 두사람이 군사를노아 백성을 노략하여 사람사람이 원망하는고로 내가 한잔치를 베풀고거짓 일을 의론한다고 술을마시다가 술잔을 던저 군호를 하여 편장 두아우로 하여금 죽이고 그무리를 항복바닷는데 이제 특별히와서 죄를청하노라』

『그대가 나라를 위하여 해를 제하엿스니 정히 큰공이라어찌 죄라 말하리요』

조조가 현덕을 두터히 위로하고 군사를 합하여 서주지경에 이르니 여포가 나와 맞는지라 조조가 조흔말로 위로하고 봉하여 좌장군을 삼고 도읍에 돌아가서 인수를 주겟다하니 여포가 기뻐하엿다。

조조가 곳 여포의군사는 왼편에 잇게하고 현덕의 군사는 오른편에 잇게하고 스스로 큰군사를 거느리고 가운데에거하여 하후돈과 우금으로 선봉을 삼앗다。

원술이 조조의 군사가 옴을 알고 대장 교유로하여금 선봉을삼어 군사오만을 거느리고나어가 양편군사가 수춘지경에서 모이니 교유가 먼저나가 하후돈으로 더부러 싸울새 삼합이 못되어 교유가 하후돈에게 죽으니 원술의 군사가 크게패하여 다라나 성에 돌아가더니홀연히 보하되 손책은 배를 띄워 강변 사면을 치고 여포는 동쪽을치고 유비는 남쪽을치고 조조는 스스로 군사십칠만을거느리고 북쪽을친다 하거늘 원술이 크게놀내어 급히 여러사람을 모아 상의한대 장사장이간하되

『수춘이 여러해를 가무러서백성이 먹을것이 업거늘 이제 군사를 움직여 변성을요란하게하매 백성이 원망하는지라 군사가 어르면 대적하기가 어려우니 군사를 수춘에 머물러 대부러 싸우지 말고 적병의 양식이 다하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변이날지라 폐하는 어림군(御林軍)을 거느리고 회수를 건느사 한편으로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고 한편으로 잠간 적의 칼날을 피하소서』

원술이 그말을조처 이풍 악취 양강 진기 네사람을 머물러 군사십만을 나누어 수춘을 굿게 지키게하고 그남어지 장졸과 금은보패를 다 수습하여 회수를 건너갓다.

조조의군사 십칠만이 날로허비하는 양식이 만하고 여러고을이 흉년이드러 양식을 이을수가 업는지라 조조가 군사를 재촉하여 속히 싸우게하되 이풍등이 문을닷고 나지안하대조조의군사가 서로막은지 달이지나매 양식이 장차 다하는지라 손책에게 글을보내어 양식쌀만석을 비렷스나 느경으로는 나누어주기가 못자라는지라 군량관 임준(任峻)의 부하 왕구(王垕)가 들어와 조조에게 품하되

『군사는 만하고 양식은 적으니 어찌하리오』

『적은말로 나누어주어서 아직 한때의 급한것을 구하리란』

『군사가 원망하면 어찌하리오』

『내가 스스로 도리가 잇스리란』

왕구가 조조의명을 의지하여 적은말로 나누어 주엇다。

조조가 가만히 사람으로 하여금 각진에가서 엿들으니 원망하지 안는자가 업서서 다말하되

『승상이 여러사람을 속인다』

하는지라 조조가 가만히 왕구를불러 말하되

『내가 너에게 한물건을 빌어서 여러군사의 마음을 진압하고자 하노니 너는 허물치 말라』

『장군이 무슨물건을 쓰고자하너뇨』

『너의머리를 빌어서 여러사람에게 뵈이고자 하노라』

왕구가 크게놀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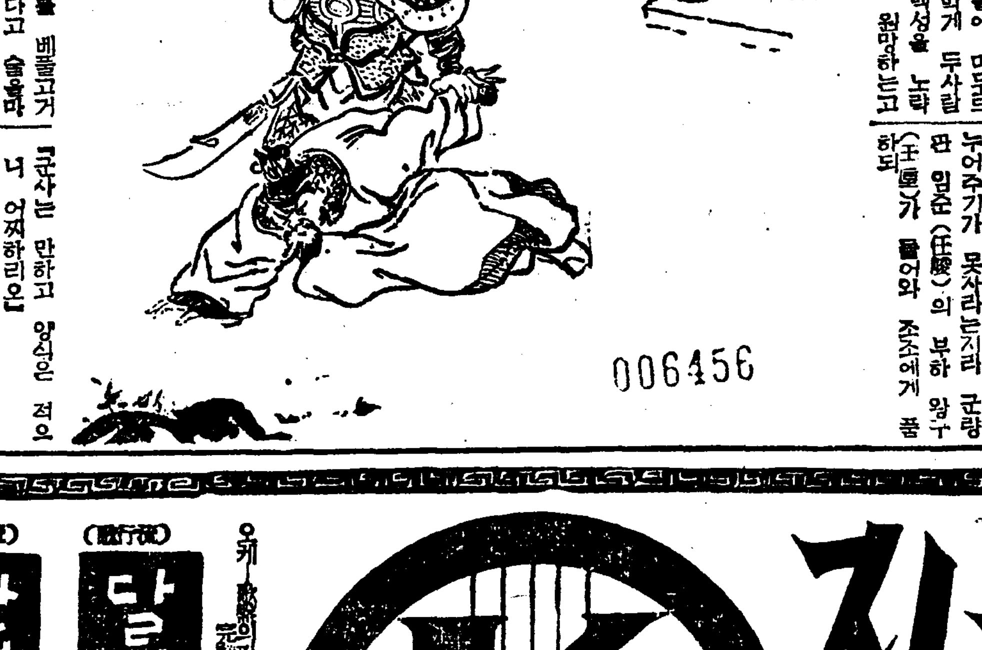
『저는 실로 죄가업노라』

『나도한 너의 죄업는것을아나 다만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군사의 마음이 변할지니 네가 죽은뒤에 너의 처자는 내가스스로 기를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왕구가 말하고자할새 조조가 벌써 도부수를 불러서 문밧그로 미러내어 한칼에 베어 머리를 노흔나무에 달고 방을내어 뵈이되

『왕구가 짐짓 적은말을 써서 군량을 도적질한고로 군법을 썻다』

하니 여러사람의 원망이 풀리엇다



006456

오케-레코-드

울어라門풍지
내어이왓나요
(流行歌) 李蘭影
喜거운過去夢 (流行歌) 李蘭影
(片面) 꼿피는花瓶 南仁樹 張世貞

오케 歌謠의파라다이스 完璧을자랑하는傑作集!!

(流行歌) 달업는航路 李蘭影 (孫牧人曲)
(流行歌) 안개낀上海 南仁樹 (朴是春曲)
(流行歌) 코스모스嘆息 朴響林 (金海松曲)
(民謠) 一片丹心 李花子 (朴是春曲)
(流行歌) 金貞九傑作集 金貞九 (文藝部編成)
(流行歌) 서울뿌루-스 李寅權 (孫牧人編曲)
(流行歌) 張世貞傑作集 張世貞 (文藝部編成)
(流行歌) 中国아가씨 張世貞 (朴是春曲)
(流行歌) 일허버린恋女詩 徐玉子 (朴是春曲)

十二日封切
悪漢の町
痛快、壯烈、
フリムストンの山河にこだまする、惡漢と快男子の爭鬪を描く豪壯無比の超大作!
ウォルター・ルーベン 監督
ウォーレス・ビアリイ
ヴァージニア・ブルース
デニス・オーキフ 共演
わが子の結婚 "ある母の告白"
原作 菊池寛 監督 大庭秀雄 サンデー毎日所載
細川俊夫 三浦光子 飯田蝶子 坂本武 共演
料金 五〇錢均一
明治座

十二日より
ゲーリー・クーパー マール・オベロン 主演
ヘンリー・C・ポッター 監督
サミュエル・ゴールドウヰン作品
クーパーが描くアメリカンカウボーイ生活、そこへ、じゃじゃ馬娘が一人とびこんできた
牧童と貴婦人
UNITED ARTISTS
續映!! 續映!! 壓倒的大好評!!
ターザンの猛襲
ジョニイ・ワイズミュラ モーリン・オサリヴァン ジョン・シェフィルド 主演
リチャード・ソープ 監督
料金 五〇錢均一
午前十時半開演
大陸劇場

東遊記
白蘭の歌の人氣者 李香蘭映畵
東寶 原節子・藤原釜足 澤村貞子・岸井明 出演
「白蘭の歌」であなたの胸を射抜いた滿映の女子が唄と踊りの豪華ローマンス
唄ふ 李香蘭 特別主演
劉恩甲・王宇培 張書達・徐聰 共演
仇討こよみ
東寶
長谷川一夫 黒川彌太郎 山根壽子 主演 時代劇
12日封切
若草劇

어린이의善藥
小兒肝氣散
製造元 普生藥房本舖
洋靴 ゴム靴 運動靴
大京皮革商店

強力リベール錠
各藥店에有함
大阪 竹村製劑所

讀書

朝鮮"巫俗"의 研究

赤松·秋葉兩氏의 著書를 읽고

方鍾鉉

(巫俗) 에 關해서는 누구나 一種의 迷信으로 蔑視하여 一顧의 價値조차 업는것으로 알아 오는터이다. 그러면서도 迷信 이低級한信仰을 宗全히 그各自의 信仰心에서 떼어버리지못한 아무도업다는것이 奇異한 일이라고 하겟다. 여기서 迷信이라고하여 識者層에서는 더퍼노코 排斥하는이 迷信이란 事實과 또 그처럼 低級한 信仰인줄을 알면서도 不拘하고 文明한 世上에서 오히려 行하면서잇는 이奇異한 事實, 이前後의 兩事實이 우리로하여금 이巫俗을 좀더 알고십게 하는것인가한다. 即 이巫俗이 果然 迷信에끄칠까 또는

(信仰) 에屬할수잇는것일까 考査하고 判斷하여서 學問上의 決論을 엇고저하는바이다.

京城帝大의 宗敎學 社會學의 赤松智城, 秋葉隆 兩敎授는 이번에 다시 『朝鮮巫俗의研究』의 下卷을 共編出版하엿다. 前日에도 本報에 이上卷이 처음 나왓슬때에 간단히 紹介한 일이 잇섯거니와 이번에 그下卷이 參考圖錄을 附錄으로하여 浩瀚한 大著로 完結하게된것을 봄에 오늘에 잇서서 이迷信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바 큰것이 잇슴을도한번 알게한다. 兩敎授는 文獻上으로 古今을 通하고 地域的으로 十三道를 踏査하여 南으로 濟州島끄테서 北으로 鍾城 會寧 西으로 定州 東山 蔚珍 三陟까지 아니간곳이업시 一一히 巡廻하며 이方面의 材料를 蒐集하여 或은 論文에 或은 寫眞을 나타내엇다.

만일 (迷信) 이란것이 다른것이 아니고 世代가 변해 바뀌고 人智가 차츰 달라짐에 따라서 前에잇섯든일이 後人으로하여금 奇異感 그보담도 그런일이 잇섯슬理가 잇나하는 一種의 疑訝의 念을 품게하는것이 만일迷信이라고하면 即現代人의 知識을벗어서 解釋할수업는 低級의 信仰을 가르처 만일迷信이라고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依하여 前代의 社會相을아는 一面이 될것이고 또이 迷信自身의 變遷過程에 잇서서 內外로 關係되는 事情을 아울러 窺知할수잇는것이라고 보겟다.

이제 이『朝鮮巫俗의研究』의 下卷에서 그目次를 따라보면 第一章이 巫祖의 傳說이오 그第二章이 巫의呼稱과 種類로 되어잇스니 巫祖의 傳說에는 聖母巫祖傳說, 王女巫祖傳說, 賢女巫祖傳說을 順序로 細論하여 傳說에서 三個特徵을 把握하고 이特徵에 따르는 朝鮮社會相을엿볼수잇스니 保守主義요 平和理想을 指示할수가 잇다.

巫의 呼稱으로 무당이라는稱呼에 잇서서는 高麗史와 李朝實錄에 잇는

(巫堂) [illegible] 漢字와 [illegible] 가운데에잇는 무당이라는 名稱과는 무엇이 그語源이 같고 다른 [illegible] 關係가 잇다. 「[illegible]」 民間에서 巫의 呼稱이 「무당」이라함도 一種 稱되엿다고하는 事實은 반드시그 起源에 잇서서 同一한것이 아니엇는가 하는생각을 갖게하는 것이오 또 그러므로 朝鮮의 巫俗이라는말도 이 「우리간」의 [illegible] 하는 생각도 가지게되는바이다. 一一히 目次를 따라서 細論하는것을 避하거니와 이巫俗과 佛敎와는 어떠한關係가 잇는가 또는 [illegible] 乃至

(儒敎) 와는 全然 關係가 업는것일까 或은 高麗朝에 盛行하던 佛敎에서 今日에도오히려 何等 行事가되어 잇는것과는 얼마나한 關係가잇을까 또 人間巫와는 全然 關係가 업는것일까. 巫는 佛敎와 道敎와 儒敎와 乃至 民間行事와도 密接 或은 間接으로 서로 影響된것이 事實이다.

나는 우리의 民間信仰이 學理的으로 硏究되려면 무엇보담도 이巫俗의 硏究에 依하여야할것이 가장 큰코 또 가장 쉬운것일줄로 안다.

그러므로 兩敎授의 이上下兩卷의硏究는 實로 朝鮮의 큰業績임을 거듭 讚揚치안흘수업다.

入學案內

學校名	募集人員	願書提出	試驗日字
公州永明實修學校	(男)三〇 (女)三〇	三月二十五日까지	三月二十六日
密陽公立農業	五〇	三月十日까지	三月十[illegible]

現代女性의體育美

나의 宣言

卒業을 압두고……

京城保育 鄭淑子

一個月後에 卒業을압둔 우리들의가슴은 글字그대로의 動搖를 禁치못합니다. 마지막 學窓을 作別하는데 當然한 感想일지 몰으되 이제 實社會에 첫발을 내여딋는 意氣揚揚한 幸福感보다도 떠날 이學窓을 惜別하는 感傷的인 氣分이 더濃厚하다고나 할흔지요.

無限한 哀愁에 잠긴 요사히입니다 過去十二年間의 學窓生活은 참으로 꿈과갓습니다. 小學校六年 고독리며 先生님 아페 매여 달려 어리ㅅ광피며 뛰여놀던 그時節! 先生님 속태워가면서도 한마디人事조차 드릴줄몰으고 흥흥히 母校校門을나와 女學校에, 그리고 또 至今이學窓, 한階段 한階段, 堅固한階段을 밟으면서 올라와올 우리들의 길이엇습니다만은 至今올올데까지 올라와 뒤를 돌아다보고 문득 흔들흔들 하는 저의 階段을 내려다볼때 아차 깜작 놀랏습니다.

마지막 學窓을 떠나면서 未來에 장차 올것에 對한 自信과 決心보다도 먼저 過去에 對한 넘우친에 複雜한 感想이 어 용소슴칩니다.

그러나 四月부터는 어린이들의 保姆! 이만한 見識과 이만한 技術을 가지고 能히어린이들에 必需한 人物이 될까? 感傷에 흐르면서도 다시 現實을 生覺코 이리저리 生覺하고잇습니다.

어린이들의 참다운要求는? 그네들의 아름다운 性情의 涵養! 完全한 어린이다운 어린이! 그리고 將來할 보배를 한북 가슴속기피 秘藏하여잇는 어린이들이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새삼스러이 이存在가 하므라도 바삐 그네들의 要求하는 同伴가되며 참다운指導者가 되기를 마음속 기피는까고 憂鬱하는中에 잇서 한편으로는不安에 차하잇스면서 도하면모든 期待와 好奇心에 [illegible] 도합니다.

實社會는 어떠한것인가? 現在의生活과가지 [illegible]하여 기다가도 先生님업는 生活이 또구나 [illegible] 어는 [illegible]을 느낌니다.

어데 [illegible]하여서 實社會에 나아가 언제나 自己의不足을 補充하여가며 [illegible]가 期待하는, 그리고 어린이를 爲해서 女性으로서 期待하는人物이 되려고 [illegible]하는바이며 어떻한 [illegible] 一員이 되엇스면 그리고 그 [illegible]될까? [illegible]하고 시픈 마음 [illegible]합니다.

結婚과經濟 ②

研究論文 法政大學 朱鎭球

우리는 以上을 通하여 家庭內에 閉되어온 女性들의 職分은 그것이 固定的인 永久不變의 天職이 아니라 今日까지 家庭的으로 또는 束縛해온 그들의 補助的勞動이 婦人들로하여금 家庭內에만 局限된生活을 持續하게하엿다는것을 알수잇다. 오늘의 發展된 分業的 機械工業은 如斯한形態의家庭에 銳利한 칼로마웟것 쪼각지를 始作하면서 그것에 適應되는 새로운 結婚形態를 要求하고 잇다. 그러나 우리는 職業戰線에 進出하고잇는 오늘의婦人들의 동에는 勞働과 母性이라는 두가지 거룩한 職分이 賦課되고잇슴을 窺知할수잇다. 「어런게이」는 이點으로 性에 隨伴하는 婦人들의 特殊한職分ㅣ即 그優越權을 主張하면서, 母性을 尊重하는 精神에 立脚해서 婦人들의職業的從事를 極力非難하게되엇스며, 『戀愛自由』란 結婚觀을 提唱하게되엇다. 그래서 特히 우리들에게 注目을喚起시키는點은 이러한女性들의 生理的特性에서 母性으로서의 婦人들에 利益을保障할것과 그特性을保護하는 其他의 그들에 力量의 利用이 要求된다는點이다. 如斯한 女性들의 生理的特性을 指摘해서 「人類保存과財產相續者를 保護하는 存在에서 女性들의 全的使命과價値를」云謂하는 「쇼펜하우엘」의 見解는 女性을單純한 生產의製具로서바지를觀察지안는 態度이다.

(結婚) 과經濟 이것은 不可離의 聯關을가지고잇는 問題로서 結婚이라는 그問題自體는 언제든지 個人的인 當事者間의 愛情과相互的인愛情을 要求하며 經濟的打算과 生活手段이라는 條件으로서는 獨立되는 問題이다. 結婚이 相互間의 生活을維持할 經濟的保障을 要求하는것은 事實이나 그것이結婚을規定하는 基本的要因은 아니다. 戀愛와結婚은 當事者間의 愛情과意思와 感情이란 要因으로 規定되는것이며 그것이 結實되어서 家庭이라는 社會的結合單位를 形成하는데에 비로서 二次的으로 그들의 生活의保障을 要請한다. 우리는 經濟的打算과 金錢的利害가 眼目이며 그獲得을 目標로한 한개手段으로서의 結婚을 否認할뿐이다.

結婚의 現實的인 形態로서의 家庭은 經濟的基礎우에서 營爲되는 하나의 上層建築이며 그 社會的性質에 잇서서는 結婚은 一次的으로

力에 依해서 解決되어 잇지안코 면안될것이다. 人間에 相違되는 內容에 結婚을 그들에게 提供하고잇다. 酒肆靑樓에 出入하는男便을 每日가치 기다리게되는 家庭하고 오라사비 草家에서 苦을 짤어 그날그날을 延命하는 餘念이 업는 夫婦間의 現實的生活의 形態사이에는 넘우나한 거리가 잇다. 그래서 個人的인 問題로서는 結婚은 相互間의 愛好와 愛情을 基礎로 出發되는 것이나 그社會와의聯關되는 社會的形態로서의 家庭은 그生活을 維持할수에必要한 一定한 經濟的條件과 關聯되는것이다. 그러나 一時的이며 輕佻浮薄한 戀度와 容模와 外觀에만 執着되는데서 出發하는

(戀愛) 와 結婚은 當事者間의 敎養的인 人格的性質을 넘무나 輕蔑하는 危險性을 隨伴함과 同時 멀지안흔 來日에 破綻의悲劇을 招來한다. 이것은 經濟的條件을 眼目으로 成立된 戀愛와 結婚이 經濟的條件에 依해서 動搖되며 破滅되는것과가치 그 當然한 應報에 依한 運命의 苦盃일것이다.

나는 貴下의 가장 現實的이면서 着實하고 健全한 結婚觀에 尊敬의 뜻을 表하여마지 안는바이며 더욱히 아래에 引用한 句節은 再三味讀을 거듭한 句節입니다.

(經濟) [illegible]것이다. 人間의 生活[illegible]는 그들의 [illegible]을 充足하고 各自의 基本的인 [illegible] 그들이 結婚[illegible]하고 [illegible]비로서 그들의 糊口之策은 그들의 [illegible]

悔恨 (詩)

大邱 [illegible]

[illegible]하늘 한번에
사뿐거린 새하얀 구름을
[illegible]한 季節風이 실어가져
어미오려다
흘린 나의 靈魂을 求하려는
아득한 어버이의 情을 흘려
첫나니
精神分散된 [illegible]의
마음은
限업시 알려갓고 시름업다
來日 일하려던 주먹도 버어
지고
[illegible] 수풀때나니
고달픈[illegible] 흘로 흘린 寂寞에
서
늦은 봉오리가튼
섬[illegible] 가야금을 탄다오
지난 그날의 [illegible] 悔恨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은 꿋꿋는 저녁달루……

(詩) …밤…

中東學校 李道淳

밤이되면
疲困한마음
이불속을 파고드는,
밤이되면
어렵듯이 몸을담는
가얄픈瞞覺
아 「밤」을 간지르는
밤의 작난군
이 모든것이
아닌밤중을 거니게한다

(詩) 病室女人

咸興師範 趙泰元

琉璃窓넘어 힌커ㅣ텐우에소리업시 黃昏이 밀려오면
花瓶에 까라안즌 思念처럼 孤獨은 스린다。
이우는肋骨, 마디마디, 허무러지는 肉塊 肉塊ㅣ
喀血처럼 아름다운 歲月이
차운 달빗처럼 흘으는病室에는
밤마다 興奮소리 구서진 音律이 꿈처럼 피고,
식은땀이 힌이마에 물결처럼 흘으고。
이미形骸우에 부정스런 指紋이 찍혓다친대도
歷史가점지한 宿命은 地層으로 돌아가거니
落葉이 떨어지는 廢墟처럼 龜裂진肺臟ㅣ
젊음이 肺와함께 고단스레 떠난다웅
사랑도 젊음과함께 흘러간 記憶의年輪。
悔恨도 追憶도……붉은喀血은 이처럼 흐허고,
白蠟처럼 힌이마에 헝크러진 검은머릿가락
야윈 볼우에 바꼿마냥 쓸쓸한 微笑微笑。
——順姬의肖像一節——

週間스포ー츠

校門떠나는選手들!

學園競技의眞髓

"크린"한精神을社會에發揮하라 (上)

해마다 이맘때가되면 中等學校 專門 大學에서는 螢雪의功을닥고서 校門을 떠나게되는것이다. 中等校의 卒業生은 家庭的事情으 不得已한形便으로말미암아 校門을 떠나는直時로 實社會에 經過도업는몸으로서 就職處를 찻게되는사람도 잇겟고 또는 經濟的環境과 個人의모든條件이 極히豊裕하여서 上級學校에 入試驗機會를 가지므로 向學熱이 高調에達하게되는사람도잇슬줄안다. 上級學校에 入學하여서 心身을 더욱더옥鍛鍊하고 鍛鍊하는것도 우리社會의 立場으로보아서 第一조흔現象이라고할것이고 그러치못하여서 實社會에나가서 淺薄한知識과 不足한經驗을가지고 實社會에서 生을爲하여 奮鬪하고 努力하는것도 조흔現象일것이다. 現實社會에 나가든지 或은 上級學校에 入學을하든지간에 問題가 되는것은 「어떠케하여야할까?」하는것이될것이다. 우리人生에게 附與된 모든條件에잇서서 第一로큰것이잇스니 그것은 곳먹는것과배우는것의 二大課業이라고하겟다. 上論한바와가치中等校를 卒業하고 職業戰線에로 달리는 사람은 먹는것을 보담압지기 解決하고 現實社會와싸워가면서 第二義的으로 배우는것을 目的하는것이다. 그러나 上級學校에 入學을 希望하는사람은 더 배움으로써 먹는 것을 조흔條件아래서 解決하자는데 目標가잇슬것으로 생각하게되는것이다.

筆者가 이와가치 말하게되는것은 中等學校나 專門大學을莫論하고 學窓時代에잇서서 『스포ー츠맨』의生活을 하든사람들도 今春에 校門을 떠나서 現實社會에다 初步를 踏게되는 사람도잇겟고 學業을 더繼續하여보려는 마음으로 上級學校에 就學하려는사람도 잇슬것으로 밋는까닭이라고하겟다. 現實社會에나가든지 또는上級學校에 入學을 하든지간에 運動選手이면 『스포ー츠·맨·쉽』을 暫時라도 忘却하여서는 아니될줄안다. 왜 그러나하면 學窓時代에잇서서의 體育을하는 理由를한번面顧하여보면 더욱 明瞭하게 알어질줄確信한다.

學校敎育이라고하는것은 學生들에게 知育과德育을 涵養시키는데 敎育의目的이잇슬것이다 이敎育의目的을 達成하는데는 여러가지의方法이 잇겟지만 여고서論할것이 아니므로 省略하고 體育에關하여서 論하고보면 이와갓다 사람이 生活을하는데 絶對로完全한生活樣式은 업겟지만 完全한生活에 가까이 하자면 사람은 知, 德, 體의 三育을 修養치아니하면 아니될줄안다. 누구나 周知하는 事實이겟스나 우리生活이나 其他의條件으로 보아서도 學校의敎育에 잇서서도 知, 德, 體의 三育에 對하여서 [illegible] 施行되지하나 歐米의敎育에잇서서는 이三育에關하여 充分히 하고잇는것이事實이다 또한 社會的으로도 知, 德, 體三育의 專門化까지도 切實히 要求되고 잇는것이다 그러나 우리社會에서는 [illegible]한가운데도 不徇하고 學校의敎育에서 知育이나 德育에 對하야서는 [illegible]겟스나 體育에 關하야서도 만흔犧牲을 하면서도 獎勵하고 指導하는것이 오늘의 現象이라고하겟다.

精力強進劑 參茸トニク

洪命憙先生著 林巨正 火賊篇(中) (第四卷)發賣中!

強壯劑의大王 그증거로는 一粒中의비타민A는게란十五個와牛乳三升과갈음

비ー타민AD의不足은 諸機能을衰退식혀 青春은短縮된다! 비ー타민劑의王者 鯢魚의진국인오오곤리온

아모리 壯丈한 機械라도 [illegible] 使用하기만하고 손질하지안흐면 機械의 壽命은 [illegible] 여러가지 故障이 生기는것은 定한理치입니다 그것과가치 사람의身體도活動에依하여 生기는 疲勞를解消식이지안하고 無意無識中에早老를이루게됩니다 [illegible] 抗病力이弱하야 結核等의 病에걸니기쉬우며 人生의一生中에 [illegible] 最大限度의享樂을 [illegible]하여야할 靑春을 [illegible] 오오곤리온은 服用하야 [illegible] 그리하니 平常부터 『오오곤리온』을 服用하시도록 勸告합니다 오오곤리온은 最近日本深海에棲息하는 鯢魚로부터 發見한 비ー타민A와D의 單價를 가장豐富히含有하고잇는 鯢肝油를主劑로하고 이에 兩性『홀몬』機能을 旺盛케하는 [illegible] 配劑한 本邦最高級의 強化劑입니다

이러하신분은 꼭服用하십시요

早老現象, 老衰, 衰弱體質, 內分泌機能衰退, 動脈硬化, 血壓亢進, 結核諸症, 貧血, 常習頭痛, 神經衰弱, 婦人病, 陰萎, 不感症, 性慾減退, 糖尿病으로因한生殖機能衰退로 精神的으로事務, 運動으로疲勞하신분, 病後의衰弱하신분等。

用法 一日三回 食後二粒ー三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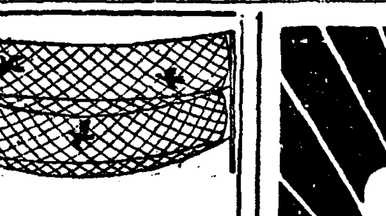
價藥 四十五粒入 一圓五十錢 / 百粒入 三圓 / 三百粒入 八圓 / 五百粒入 十二圓 (送料四十二錢)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丁目 日本水產理硏東京營業所 振替東京八四〇三二番

注文法 前金또는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되 至急을要하는 注文은電報로 [illegible] 서류를 무시하고 注文하시면 [illegible]

オオコンリオン (오오곤리온)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主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百補丸會社



製絲綱上等 鳥捕網
高六尺 二棚 二間 二圓五十錢 / 三間 三圓五十錢 / 四間 四圓五十錢 / 五間 五圓五十錢
投網·兎捕網·綿絲·綱絲 釣道具 各種
型錄進呈
製造卸商 海鮮商會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振替京城二〇五七九番

各帝大病院常備藥 遺忠아웃호르몬 요ー도부루ー또ー제
ヨードブルトーゼ
動脈硬化
ブルトーゼ의最大特徵은 血作用과 요ー도의藥理作用에依하여 病的組織의改善과 滲出液의吸收에奏効하고 特히 梅毒·精力減退·甲狀腺肥大·血管硬化症·慢性關節炎等에著効有함
小瓶 二·三〇 大瓶 三·五〇

虫驅除 マクニン 마구닌
다먹기좋고잘듣기 고맙기에

大陸劇場 12日より上映時間表

ターザンの猛襲	10·30		
ニュース	11·56	3·17	7·00
牧童と貴婦人	12·13	3·35	7·18
ターザンの猛襲	1·46	5·08	8·51

松竹映畫 明治座 12日より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00	1·36	4·12	7·00
わが子の結婚	11·19	1·55	4·31	7·19
惡漢の町	12·04	2·40	5·16	8·04

若草劇場 2月12日よりの上映時間表（早朝割引有）

東遊記	10·30	1·25	4·20	7·20
ニュース 文化映畫	11·45	2·40	5·35	8·35
仇討ごよみ	12·05	3·00	5·55	8·55

入場料五十錢均一

新富座
二月十一日ー十三日迄 紀元節(十一日)午前十一時ー 晝夜映(十一日限り) 普通日 一時, 三時, 八時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松竹大船特作 若い人の立場 主演 水戶光子 新人 阿部
東寶社超特作 エノケン 頑張り戰術 榎本健一主演
超特作 ファーストナショナル レットワゴン 監督 ボール·レステン 主演 チャアルス·ビックフォード
次週 [illegible] 日本人(全部) 地球をける男

第一劇場
劇團阿娘 公演 二月八日(舊正月一日)부터 林仙主作 結婚條件 四幕七場 (一名어머니는바보) 舊正月一日부터四日間 晝夜公演 晝間正午 夜間七時開幕
次週晝間映畫 二月十二日부터四日間 時局演藝風景, スキン ハイテイ, R白狐傳, グミリアンショウ
特別豫告 二月十九日(舊正月十三日)부터 朝鮮聲樂硏究會總力演 ◇玉樓夢 七幕十六場 一流名唱總登場

京劇
十二日より上映番組 新興京都大作 恩愛うきよ侍 大谷日出夫·松浦妙子 新興東京時作 曉の門出 加賀邦男·草島競子 ニュース
第一回 十一時半 第二回 二時 第三回 四時半 第四回 七時半 大衆席 三〇錢

桃花劇場
二月十一日ー十三日迄 每日晝夜二回 一時 七時 特別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大每、東日ニュース
松竹大船特作 美しき母性 監督 蜂川伊勢夫 主演 水戶光子 坪內美子
滿洲映畫協會特作 冤魂復仇 監督 大谷俊夫 主演 李香蘭 劉恩甲 張書達
メトロ社超特作 極樂浪人天國 監督 ジェスW·ホール 主演 オリヴァン·ハーディー スタン·ローレル
次週 い人の立場 レッドワゴン 張り切れ

日活映畫 黃金座
二月七日より 二月十三日まで

大地に咲く	12·00	3·20	6·30	
ニュース ホームグラフ	10·10	1·30	4·50	8·20
三味線武士	10·30	1·50	5·10	8·40

午前中入場料30セン均一